

# 瘀血과 炎症

李 丙 表



## 1. 序論

- ① “어혈”이라고 하면 範疇가 너무 廣範圍하여 다 說明하기 어려우므로 筆者가 臨床經驗한 것만 記述하기로 한다
- ② 어혈이란 몸이 충격을 받아 나쁜 피가 생겨 痛症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③ 어혈이 생기는 原因으로는 大概 다음과 같다.
  - 넘어지거나 落傷하였을 때, 打撲傷을 입었을 때, 捻挫(염좌 빠였을때), 쇠꼬챙이나 가시 등에 찔렸을 때 등
  - 過勞 즉, 무거운 것을 오래 사용하거나 中노동을 하였을 때 등
  - 咬傷(교상) 즉, 毒蟲, 毒蛇, 짐승 등에 물렸거나 中毒되었을 때 등
- ④ 어혈이 생기면 生命의 原動力인 피가 濁해짐과 아울러 신체 일부분의 機能을 喪失하게 되고, 크게는 全身麻痺, 더 나아가서는 老化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망하게 된다.
- ⑤ 어혈의 症狀
  - 붓고 아프며 피멍울이 생긴다.
  - 어혈이 있는 자리는 대부분 炎症이 되어 적게는 毘루지, 크게는 腫瘡을 비롯해서 蛇頭瘡(足疽), 버거스병, 癌 등으로 이어지고, 炎症을 同伴한 關節痛이 생기기도 하고 염증 없이 통증만 나타나는 神經痛 등이 있다
  - 대개 어혈이 생기면 염증이 되기 때문에 어혈과 염증은 떨레야 떨 수 없는 兄弟間의 病이라 할 수 있다.

## ⑥ 病의 輕重

- 다쳐서 아플 때 다친 부위를 세게 눌러야 통증이 있다면 輕微한 증세이고 가만히 눌러도 통증이 있는 것은 보통 아픈 것이고 살짝 스치기만 하여도 못 만지게 아픈 것은 重症이다
- 輕症일 때는 單方藥을 찌어 붙이고, 진통제만 몇 번 먹으면 수일 내에 나을 수 있지만 重症일 때는 惡化되기 때문에 鍼治療法과 湯藥 복용을 서둘러야 한다.
- 捻挫 즉, 넘어져 손목이나 발목을 빼어 많이 다쳤으면 3~4日間 계속 더 부을 수 있으며, 이 때 가만히 있어도 아리면 折骨 되었거나 뼈에 금이 갔을 수 있다.

## 2. 瘀血 治療方法

● 瘀血治療方法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分類 할 수 있다.

- 瀉血方法(사혈방법)과 鍼治療法(침치료법)
- 按摩法(안마법)
- 뜸과 附缸療法(부항요법)
- 熏煙法(훈연법)
- 附藥法(부약법)
- 服藥法(복약법)

① 鍼治療法(침치료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 뽀루지같은 단순히 적게 생긴 염증을 침을 놓아 피만 나오게 하는 사혈요법과
- 위의 사혈요법을 거쳐 고약과 파스까지 붙이는 過程 全部를 簡單히 침치료법이라 하였다. 이 法은 뒤에 자세히 記述한다.

② 按摩法은 아픈 곳을 주물러 병을 치료하는 법인데 염증이 안 생기고 단순히 아프기만 하거나 神經痛, 關節炎 등에는 顯著하게 나올 수 있으나 염증이 있으면 안마로 인하여 더 악화될 수 있다

③ 뜸과 附缸療法

- 뜸뜨는 법은 뜸썩을 당처에 놓고 불을 붙여 열을 이용해서 염증을 풀어지게 하는 방법이고
- 부항요법은 부항을 당처에 대고 吸角器(흡각기)로 공기를 뽑으면 어혈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시일이 지나면 낮게 되는 방법이다.
- 뜸뜨는 法을 이용하여 어혈을 치료하는 방법 중 명태짚이라는 것이 있다 발뒤꿈치가 아프거나 살을 베거나 찢려 멍든 곳이 있으면 무명숨이나 무명형겉에 불을 붙여 당처를 뜨겁게 쪼면 한 두번에 완쾌된다

④ 薰煙法은 어혈을 치료할 수 있는 몇가지 약을 모아서 作末하여 불 위에 올려 거기서 나는 연기를 患部에 쪼거나 코로 吸入하여 어혈을 體內에서 發散시키는 방법으로써 대표적인 방법으로 龍棗散(용조산, 주1)이 있다.

⑤ 附藥法은 어혈부위에 약재를 붙이는 방법으로써 古今을 통하여 널리 사용되는 民間療法으로 좋은 약을 골라서 사용하면 신기하게 잘 낫는다

- 生地黃, 梔子, 白芥子, 苦蓼 등을 작말하여 술이나 식초 등에 개어서 붙이기도 하고 밀가루를 섞어 떡처럼 만들어 당처에 붙이는데 이것을 흔히 초개떡이라고 한다.

- 한약방에서는 八珍散(팔진산, 주2)이라고 하는 여덟가지 약재를 혼합, 작말하여 밥에 개어서 떡을 만들어 붙여 주었는데 이것을 八珍餅(팔진병)이라 하여 진통제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처방이다.

- 붙이는 약에 대하여 금년 80세 된 老人의 25세 때 치료경험담 한가지를 소개한다

겨울에 철로 위를 건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무릎關節을 부딪혀 탕탕 부어 다니지를 못했는데 그것을 본 어느 노파의 처방에 따라 牛膝뿌리를 찢어 상처부위를 감싸주고 3日만에 한번씩 갈아붙였는데 1개월만에 완전히 나았다는 이야기다.

⑥ 服藥法은 單方藥이나 여러가지 藥物을 습해서 服用하는 것을 말한다.

- \* 어혈이 생기면 上記 치료방법 중 한가지만 사용하기도 하고 두 가지 이상 사용하기도 한다.
- \* 어혈은 한번 생기면 경증일 때는 몇일 지나면 없어지겠지만, 중증일 때는 服藥法으로 치료하여 통증이 없으면 다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혈만은 쉽게 없어지지 않고 몇 달부터 몇 년까지 그 자리에 잠재해 있을 수 있다. 중노동을 할 때나 日氣가 꺾으면 통증이 再發하는 것은 어혈이 남아 있다는 증거다
- \* 어혈을 깨끗하게 치료한다는 것은 마치 웅덩이에 고인 썩은 물은 완전하게 퍼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때 맑아지는 것과 같이 사혈요법이나 침치료법을 시술해야 어혈이 빨리 없어진다는 것이다.

### 3. 鍼治療法

#### ① 鍼治療에 사용되는 材料

- 사혈침 - 自動스프링 三稜針, 도장針(도장만한 원통에 針이 여럿 달린것)
- 附缸(抽氣罐, 유리관)
  - \* 附缸은 크고 작은 것이 있는데 손가락 같은 좁은 곳에 사용할 부항은 시중에 없으므로 필요시 플라스틱 注射器管을 잘라서 만들면 된다.
- 吸角器(自動式 空氣 開閉器)
- 약솜
- 膏藥(고약)
- 파스(약국에서 팔고 있는 것)
- 가위

#### ② 施鍼方法

- 針 놓을 곳 어혈이 생긴 곳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가장 아픈 곳을 중심으로 정하여 침을 놓고 다음에 손가락처럼 크기가 좁은 곳은 중심에서 四方 5mm이내, 엉덩이와 같이 넓은 곳은 중심으로부터 2cm 간격으로 사방에 침을 놓는다. 다섯곳에 침을 놓는다 하여 五行針이라 부르며,

## ■ 瘀血과 炎症

蛇頭瘡(사두창)처럼 손톱가장자리가 부어 있는 곳에는 一字로 침을 놓아야 하기 때문에 一字針이라 한다

\* 침을 놓을 때 한번에 세게 누르면 많이 아프고 살짝 천천히 누르면 덜 아프다.

- 針의 길이 : 살이 얇아 뼈가 쉽게 닿는 곳과 살이 많은 부위에 따라 1mm부터 1cm까지 적의 조정하며, 또한 염증의 부기에 따라 針의 길이를 조정하며, 침이 깊을수록 피가 많이 나온다.

\* 침을 깊이 맞으면 맞을 때는 많이 아프나 빨리 낮고 침을 얇게 놓으면 덜 아프나 효가가 더디다

- 사혈법 · 당처에 부항을 대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누르고 吸角器를 부항에 꽂아 공기를 뽑아내면 사혈된다

\* 피부가 건조하면 부항에 공기가 들어가 떨어지므로 부항 놓는 부위에 소독수(깨끗한 물)를 바르고 흡입하면 밀착이 용이하며, 털이 있으면 부항이 피부에 밀착되지 아니하므로 면도로 털을 밀고 시술한다

- 사혈량 · 침을 얇게 놓은 곳은 피가 아주 적게 나오는데 깨알만큼 나와도 되고 염증이 없는 곳의 사혈은 한방울 정도면 된다 다시 말해서 부기나 피멍울이 없는 곳은 더 이상 피를 빨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붓고 피멍울이 생긴 곳에 침을 놓으면 노란 물이 나온 뒤 피고름이 나오는데 어혈이 다 빠질 때까지 사혈을 시켜야 하며, 피고름이 다 나온 후 선홍색 맑은 피가 나오면 精血이므로 바로 中止해야 한다.

中止한다는 것은 흡각기의 공기를 잡아당기지 않으면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며 中止한 상태로 5-10초 정도 있다가 부항옆의 살을 누르면 공기가 들어가 부항이 떨어진다.

- 뽑아낸 피는 약솜으로 닦아내고 고약을 붙인다.
- 고약 붙이는 법 : 고약은 종류에 관계없으나 다만, 찰져서 살에 잘 붙고 땀 때 잘 떨어지면 된다. 아픈 부위의 크기에 알맞게 고약을 떼어 뜨겁게 녹여 사혈한 곳에 붙인다 고약이 덜 녹으면 살에 달라붙지 않으므로 살이 데지 않을 정도로 뜨겁게 녹여 붙여야 효과적이다. 침치료법 중 사혈도 중요하지만 고약 붙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이렇게 붙인

고약은 몸속에 있는 어혈을 뽑아내도록 5일간 붙여둔다.

- 파스 붙이는 법 : 고약 가장자리의 종이를 가위로 짧게 잘라내고 그 위에 파스를 붙이면 상처부위의 혈액순환을 돕고 고약의 접착력을 도우며, 보온이 되어 고약의 응고를 방지하여 고약의 효과를 내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상기와 같이 치료를 하면 한번 施鍼한 자리에는 거의 完治되어 두 번 침을 놓을 필요가 없다.

#### 4. 필자의 施鍼動機

- ① 필자의 開業 초기에 서울에서 韓醫院을 經營하는 崔周若선생의 吸角器 廣告를 보고 상경하여 崔先生으로부터 흡각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구입하였는데, 마침 이 韓醫院에 좌골신경통이 심하여 세 번째 內院한 患者의 시침과정을 볼 수 있었다. 이번에도 患者의 엉덩이를 눌러보고 아프다고 하는 곳에 1cm 깊이로 단 한군데 침을 놓고 서너방을 사혈하고 또 다른 곳을 눌러 아프다고 한 곳을 같은 방법으로 두 번 하고 치료를 마쳤는데 환자는 두차례 침을 맞고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 ② 그때 구입한 吸角器를 사용, 한 번 부항덥 부위 5곳에 침을 놓는 五行 針法을 施術하고 한 곳에서 한방울 정도 사혈한 후 고약을 붙여주는 방법을 주로 施術하고 있다  
흡각기를 처음 사용했던 환자는 30세된 무릎 아픈 부인이었는데 관절 부위라 다소 두려움도 있었으나 무릎관절을 눌러 아프다고 호소하는 곳 중앙 한곳에 5mm깊이로 침을 놓아 사혈만 시켜주고 五積散(오적산)에 몇가지 약을 가미해서 5貼 지어 주었는데 그것으로 완치되었다고 한다. 그 뒤로 자신이 생겨 유사한 환자가 오면 눌러보아 아픈곳의 중심을 찾아 침치료법을 시술하고 있는데, 이 시술이 복약 1제보다 효과적일 때도 많다
- ③ 머리가 아플 때, 안면이나 두피의 흑, 등창이 난데, 오금쟁이 흑, 버거스병, 치은염 등 시침이 난해한 곳도 있었고, 혈관을 잘못 찔러 당혹스

## ■ 瘀血과 炎症

러울 때도 가끔 있었다. 혈관을 찢러 피가 나올 때가 더러 있는데 그땐 즉시 약솜으로 피 나오는 곳을 10초 정도 눌러 지압하면 피가 그친다.

- ④ 이 施鍼法에 대한 내용이 침치료전문가에게는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에 불과하겠으나, 본치료법에 대하여 무관심했거나 막연한 두려움으로 멀리하였던 독자들을 위하여
- 첫째, 患者의 苦痛을 빨리 없애주고  
둘째, 병이 빨리 낫게 되고  
셋째, 患者의 治療비를 덜어주고,  
넷째,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기가 곤란한 것을 쉽게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과 각 질병에 服藥과 施鍼을 併用하면 어혈과 관계되는 질병퇴치에 매우 효과적임을 알리기 위하여 投稿하기로 決心하였다.

## 5. 瘀血이 생긴 部位와 治療의 臨床經驗方

- ① 捻挫性 瘀血(발목이나 팔목을 빼어 붓고 아픔)
- 瀉血療法이나 針治療法을 한 두번 施術하면 대개 완치된다
  - 많이 다쳤거나 切骨되었을 때는 3-4일간 점점 더 부어오르므로 3-4일이 지난 후에 침을 놓은 것이 좋다 환자의 요구에 끌려 발병 3일 이내에 시술할 경우 더 악화되었다고 하여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심하게 아프면 切骨이나 금이 간 것이므로 여러날 치료해야 하며 많이 아플 땐 拔黃散(발황산 ; 주3)을 복용하면 苦痛을 덜어줄 수 있으며, 어혈이 생기면 주로 當歸鬚散(당귀수산 , 주4)을 사용한다.
  - × 當歸鬚散을 몇일 복용하면 통증이 심해서 약을 못 먹겠다고 호소할 때가 종종 있으나 이것은 병과 약이 싸우는 일종의 생리현상이라 할까? 이러한 증상은 빨리 낳을 수 있는 징조이니 약이 병을 이길 수 있도록 거르지 말고 계속 복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② 打撲傷이나 落傷
- 60대의 부인이 지붕에 오르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전신을 움쭉달짝 못하고 병원치료 및 진통제를 계속 먹고 있어도 차도가 없어 고통이 이

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진찰해보니 가슴에 피멍울이 있어 침치료법을 시술하고 加味當歸鬚散 1제를 복용시켰는데 완치됨

③ 坐骨神經痛[좌골(엉덩이, 한두, 엉치)에 어혈이 생겨 아픔]

- 아픈 부인이 있어 침치료법을 시술하고 加味大營煎(주5)을 지어 줌 이 병은 환자가 많고 여러해를 시달리다가 찾아오고 또 洋藥 진통제를 常用하여 慢性的인 환자가 많다. 필자는 진통제 등 일절 다른 약의 복용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대개 大營煎 5劑 服用으로 거의 완치된다.

④ 過勞로 인한 四肢神經痛

- 四肢가 아파서 활동을 잘 못하는 50대 부인인데 침 놓기가 마땅치 아니 하여 加味當歸鬚散(주6) 1劑를 지어주었는데 10여첩 달여 먹다가 몸이 덜 아프고 봄 농번기라서 약을 중단하였는데 농번기가 지나 병이 재발하여 남은 약을 마저 달여 먹었더니 좋아졌다고 한다.
- 이 부인이 약을 지어갈 당시에는 약탕기가 보급되기 전이었으며 진통제를 덜 사용한 때였다. 진통제를 안 먹은 사람은 병이 빨리 낫고 진통제를 계속 먹고 있는 사람은 약발이 빨리 안나고 또 쉽게 낫지 않은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래서 이 患者도 빨리 치료가 가능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또 韓藥人이 아시는 바와 같이 當歸鬚散에 隨症加味해서 모두 效果를 보았기 때문에 發表하는 것이다.

⑤ 其他痛症(頭痛, 肩臂痛, 팔꿈치 아픈데, 腰痛, 背痛 등)

- 普通 頭痛이나 高血壓性 頭痛일 경우 머리 全體를 침으로 쪼아주면 한번에 頭痛이 낮을 수 있고 심하면 5일 간격으로 2,3회 針施術하면 낫는다.
- 患部를 눌러보아 아프다고 하면 針治療法을 해주고, 눌러도 아픈 곳이 나타나지 않으면 內傷이기 때문에 針治療를 해도 效果가 없으므로 이럴 때에는 대개 當歸鬚散에 隨症加味해서 內服藥을 使用한다.

⑥ 炎症(가벼운 염증과 무거운 염증)

- 뺨루지, 여드름, 다래끼, 입술 짓무르는데, 입염 염증(치근염은 다르다),



## ■ 瘀血과 炎症

머릿속 부스럼 등 가벼운 염증으로 종기가 막 생기려고 빨갱게 부을 때 나 노랗게 염증이 생긴 곳은 침이나 바늘로 찔러 피가 나오도록 짜버리면 속히 낫는다.

- 重症으로써 머릿속에 혹같이 크게 생긴 염증, 등창이나 발제, 손·발등이 수북히 부는데, 오금쟁이에 감자만하게 부는데, 혹이 생기기 시작할 때 등 大腫이 생기면 침치료법으로 고름을 뽑아내고 고약을 붙여두면 대부분 한 두번에 완치된다

### ⑦ 무좀, 凍傷, 鵝掌風 등

- 針으로 쪼아서 사혈시키고 蛇床子湯(사상자탕, 주7)물에 담그며, 물을 두 바가지정도 붓고 끓여서 데지 않을 정도의 뜨거운 물에 상처를 담갔다 물이 식으면 꺼낸다. 이 물을 버리지 말고 데워 1일 한 두번 담그기를 3일간 한다.

### ⑧ 蛇頭瘡, 足疽, 버거스병, 血癌 등

- 이러한 병들은 대단한 難治病이므로 침치료를 하면서 內服藥을 服用해야 한다.
- 60대 후반의 부인이 한쪽 발 무릎 밑에서 발목까지 피멍울이 생겨 탕탕 부어가지고 왔다. 이러한 병은 치료해주어도 약값밖에 받지 못하나 잘 못하면 낭패를 보기 일쑤이고 상처가 너무 징그러워 병원에 가보라고 하였더니 “병원에 갔더니 血癌이니 집에 가서 요양이나 잘 하라”고 하면서 돌려 보내더란다. 할 수 없이 치료기로 하고 침으로 쪼아서 죽은 피를 뽑아내고 아픈 부위 전체에 고약을 붙여주고 加減仙遺糧湯(가감선유량탕, 주8)을 1劑 지어 주었다. 환자가 약을 다 먹고 왔는데 부기가 썩 빠졌다 그래서 침치료는 앓고 약만 전과 같이 1劑 지어 주었는데 그것으로 완치되었다.

### ⑨ 毒蟲이나 毒蛇에 물렸을 때

- 즉시 당처를 針으로 사혈하고 白礬(백반)과 石雄黃(석웅황)을 粉末하여 누그름한 찻쌀죽에 적당히 섞어 발라 싸맨다. 毒蛇에 물렸을 때는

上記 治療法을 하고 五苓脂(오령지) 2兩과 石雄黃 1兩을 粉末하여 每 2돈씩 1일 2-3회 술에 調服, 1週日정도 服用하면 完治된다(本草)

## 6. 結論

- ① 아무리 좋은 치료법도 음식과 몸 관리가 수반되어야 완치가 가능하다고 본다
  - 어혈과 염증 환자에게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지방질이 해로운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필자는 사료를 먹여 키우는 가축이나 어물을 금기시키고 있다
  - 사두창, 버거스병 등을 앓고 있는 환자는 대부분 血糖이 많다고 한다 달거나 짠 음식, 지방질은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을 금기시키고 식사때는 밥을 뜨거운 물에 말아서 채소, 해초, 버섯, 감자 등 식물성반찬을 먹게 하면 단시일에 완치될 것으로 본다.
  - 밥을 물에 말아먹는 것에 대한 일화를 기록한다 필자의 慈親은 95세에 작고하셨는데 85세때부터 작고하실 때까지 매 식사를 겨울이면 뜨거운 물에, 여름이면 찬물에 말아서 고기반찬은 보통대로 잡수셨는데 한번도 아픈적 없이 사셨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患者들에게 음식주의를 고취 시켜야 할 것이다.
- ② 이 글을 마치면서 필자에게 아쉬운 점은 筋腫, 열로 인한 대상포진이나 丹毒, 비지 밥이 들어 있는 큰 흑의 치료에 대하여 '어혈이 아니므로 시침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치료해보지 못한 점이며, 이에 대하여 독자의 양해와 현명한 판단이 있으시기 바란다.
- ③ 끝으로 필자는 워낙 淺學薄識이고 經驗이 부족하여 廣大한 題目인 「어혈과 염증」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점 悚懼스러울 따름이며, 불충분한 글이지만 讀者로 하여금 이 분야 치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 瘀血과 炎症

● 附錄(處方 및 解說)

1. 龍 棗 散 (傳來方)		4 加味當歸鬚散 (이혈용/經驗方)		白朮 干黃 海東皮 杜仲 破古紙 山藥 牡丹 續斷 牛膝 防風 甘草 草烏	7 蛇床子湯 (經驗方)		解 說
약명	분량	약명	분량		약명	분량	
大棗去核 紅靈砂 龍腦 海兒茶 琥珀 乳香 沒藥 月石 綠礬 血竭 龍骨 胡桐炭 枯白礬	80개	當歸尾 芍藥 桃仁 紅花 蘇木 玄胡索 牡丹 茴香 烏藥 香附子 白芷 金銀花 連翹 地榆根 續斷 白芥子 甘草	2-3돈	6 加味當歸鬚散 (신경통용/經驗方)	8 加減仙遺糧湯 (經驗方)	蛇床子 地榆根 側柏 黃柏 苦參 五倍子 白礬	1 龍棗散 피우는 약의 대표적인 것으로써 피부병과 어혈에 좋으며, 大棗外葉을 粉末하여 대추와 같이 띄처럼 찌어 가늘고 둥근 막대모양 40개로 말려두었다가 1회 1개를 약한불 위에 피운다 2 八珍散(餅) 어혈이나 담든데 붙이는 대표적인 약으로써 재료는 醫員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약재를 곱게 갈아 질퍽한 보리밥에 약간의 소금과 같이 짓겨 부위별 1~4돈 가량을 피마자 잎이나 담배 잎에 싸서 5일 가량 붙이면 빨리 곱거나 염증이 가라앉는다 소금과 보리밥은 약이 굳지 않게 하고, 잎에 싸는 것은 독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3 拔黃散 염증을 뽑아 버린다는 뜻으로써 內腫, 담, 타박상, 신경통, 염증, 어혈, 골절상, 走馬痰, 식중독 등 치료범위가 넓고 효과도 빠르다 그러나 아쉽게도 麻花구입이 어렵다 분말로 조제, 환자상태나 환부크기에 따라 1회 2-4돈을 술로 삼킨다 4 加味當歸鬚散 어혈성 통증에 사용하며 酒水相半煎하면 효과가 빠르다 5 加味大營煎 노약자나 만성 좌골신경통 및 관절염에 사용한다 6 加味當歸鬚散 神經痛性 痛症에 사용한다 7 蛇床子湯 무좀, 동상, 아장풍 등 手足掌의 피부병에 주로 사용한다 8 加減仙遺糧湯 악성 피부병에 사용한다
2 八珍散(餅) (傳來方)	각8돈 4돈 각3돈	當歸尾 蒼朮 牛膝 芍藥 桃仁 紅花 蘇木 玄胡索 南星 牡丹 茴香 烏藥 香附子 桂枝 續斷 杜仲 破古紙 五加皮 桑寄生 海東皮 甘草 乳香 沒藥 草烏	각1돈				
3 拔黃散 (傳來方)	5돈 각1돈	5 加味大營煎 (經驗方)	각2돈	當歸尾 蒼朮 牛膝 芍藥 桃仁 紅花 蘇木 玄胡索 南星 牡丹 茴香 烏藥 香附子 桂枝 續斷 杜仲 破古紙 五加皮 桑寄生 海東皮 甘草 乳香 沒藥 草烏	각1돈	熟地黃 鹿角 當歸 川芎 芍藥 人蔘 黃芪 桂皮 枸杞子 兔絲子 白附子	각1돈
草烏 何首烏 南星 半夏 寶豆 檳榔 狼毒 川椒	5돈 각1돈	熟地黃 鹿角 當歸 川芎 芍藥 人蔘 黃芪 桂皮 枸杞子 兔絲子 白附子	각1돈	當歸尾 蒼朮 牛膝 芍藥 桃仁 紅花 蘇木 玄胡索 南星 牡丹 茴香 烏藥 香附子 桂枝 續斷 杜仲 破古紙 五加皮 桑寄生 海東皮 甘草 乳香 沒藥 草烏	각1돈	土茯苓 王不留行 薏苡仁 鹿角 金銀花 連翹 榆根皮 山豆根 虎杖根 枸杞子 兔絲子 肉從容 白干蠶 側柏 地榆根 防風 荊芥 白鮮皮 穿山甲 阜角子 附子 甘草	3돈 각2돈
2 八珍散(餅) (傳來方)	5돈 각1돈	熟地黃 鹿角 當歸 川芎 芍藥 人蔘 黃芪 桂皮 枸杞子 兔絲子 白附子	각1돈	當歸尾 蒼朮 牛膝 芍藥 桃仁 紅花 蘇木 玄胡索 南星 牡丹 茴香 烏藥 香附子 桂枝 續斷 杜仲 破古紙 五加皮 桑寄生 海東皮 甘草 乳香 沒藥 草烏	각1돈	土茯苓 王不留行 薏苡仁 鹿角 金銀花 連翹 榆根皮 山豆根 虎杖根 枸杞子 兔絲子 肉從容 白干蠶 側柏 地榆根 防風 荊芥 白鮮皮 穿山甲 阜角子 附子 甘草	3돈 각2돈
3 拔黃散 (傳來方)	5돈 각1돈	熟地黃 鹿角 當歸 川芎 芍藥 人蔘 黃芪 桂皮 枸杞子 兔絲子 白附子	각1돈	當歸尾 蒼朮 牛膝 芍藥 桃仁 紅花 蘇木 玄胡索 南星 牡丹 茴香 烏藥 香附子 桂枝 續斷 杜仲 破古紙 五加皮 桑寄生 海東皮 甘草 乳香 沒藥 草烏	각1돈	土茯苓 王不留行 薏苡仁 鹿角 金銀花 連翹 榆根皮 山豆根 虎杖根 枸杞子 兔絲子 肉從容 白干蠶 側柏 地榆根 防風 荊芥 白鮮皮 穿山甲 阜角子 附子 甘草	3돈 각2돈
草烏 何首烏 南星 半夏 寶豆 檳榔 狼毒 川椒	5돈 각1돈	熟地黃 鹿角 當歸 川芎 芍藥 人蔘 黃芪 桂皮 枸杞子 兔絲子 白附子	각1돈	當歸尾 蒼朮 牛膝 芍藥 桃仁 紅花 蘇木 玄胡索 南星 牡丹 茴香 烏藥 香附子 桂枝 續斷 杜仲 破古紙 五加皮 桑寄生 海東皮 甘草 乳香 沒藥 草烏	각1돈	土茯苓 王不留行 薏苡仁 鹿角 金銀花 連翹 榆根皮 山豆根 虎杖根 枸杞子 兔絲子 肉從容 白干蠶 側柏 地榆根 防風 荊芥 白鮮皮 穿山甲 阜角子 附子 甘草	3돈 각2돈
3 拔黃散 (傳來方)	5돈 각1돈	熟地黃 鹿角 當歸 川芎 芍藥 人蔘 黃芪 桂皮 枸杞子 兔絲子 白附子	각1돈	當歸尾 蒼朮 牛膝 芍藥 桃仁 紅花 蘇木 玄胡索 南星 牡丹 茴香 烏藥 香附子 桂枝 續斷 杜仲 破古紙 五加皮 桑寄生 海東皮 甘草 乳香 沒藥 草烏	각1돈	土茯苓 王不留行 薏苡仁 鹿角 金銀花 連翹 榆根皮 山豆根 虎杖根 枸杞子 兔絲子 肉從容 白干蠶 側柏 地榆根 防風 荊芥 白鮮皮 穿山甲 阜角子 附子 甘草	3돈 각2돈
草烏 何首烏 南星 半夏 寶豆 檳榔 狼毒 川椒	5돈 각1돈	熟地黃 鹿角 當歸 川芎 芍藥 人蔘 黃芪 桂皮 枸杞子 兔絲子 白附子	각1돈	當歸尾 蒼朮 牛膝 芍藥 桃仁 紅花 蘇木 玄胡索 南星 牡丹 茴香 烏藥 香附子 桂枝 續斷 杜仲 破古紙 五加皮 桑寄生 海東皮 甘草 乳香 沒藥 草烏	각1돈	土茯苓 王不留行 薏苡仁 鹿角 金銀花 連翹 榆根皮 山豆根 虎杖根 枸杞子 兔絲子 肉從容 白干蠶 側柏 地榆根 防風 荊芥 白鮮皮 穿山甲 阜角子 附子 甘草	3돈 각2돈

(昌盛堂韓藥房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84 ☎ 061-362-5300)